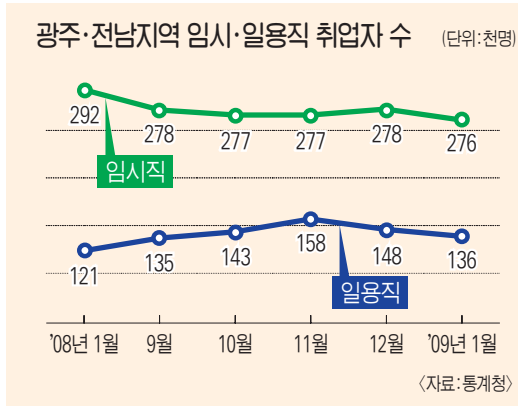


“혹시 나도?” ... 임시·일용직 떨고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업자 700만명선 깨져
광주·전남 1년새 1만 6천명 실직...해고 공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임시·일용직 일자리 700만명선 이 붕괴되면서 대량해고의 공포마저 확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합계는 695만명으로 700만명을 하회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04년 8월의 688만명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계절적으로 2월과 8월에 연중 저점을 만들고 5월과 11월에 연중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8월 700만명을 저점으로 9월 708만명, 10월 718만명, 11월 727만명에서 고점을 만든 후 12월 712만명, 1월 695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오는 7월로 비정규직법이 전 사업장으로 적용된 지 2년을 맞게 되면서 제도적인 요인에 따른 대량해고마저도 우려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1월중 임시·일용근로자의 일자리는 지난해 동월 대비 26만7천개가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이처럼 급속히 줄어든 것은 지난 2003년 10월 -27만 3천개 이후 5년여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대량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해고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도 전국 임시 근로자 수 평균 감소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일자리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광주·전남 임시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년 미만) 수가 27만6천명(광주 14만5천명, 전남 13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천명(5.5%)이나 줄었다.



이는 전국 임시근로자 수 평균 감소율(2.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광주가 4만6천, 전남이 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각각 1천명(1%), 1만4천명(17.7%)씩 늘어나는 등 일자리 질적 수준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4.6%), 도소매·음식 숙박업(-1.7%) 등을 비롯해 서비스·판매종사자(-1.8%),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3%) 등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최악의 경기침체와 함께 임시·일용직,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임시 근로자= 임금 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임금 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은행 제1기 대학생 홍보대사들.

光銀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합니다

광주은행이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 인재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2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지역 대학 2~3학년생을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7개월간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대신 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전남 대학생 대상 20~25일 인터넷 접수

모집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로 광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jbank.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

코스닥 4개월만에 400선 돌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가 4개월만에 400선을 돌파했다. 16일 코스닥지수는 7.18포인트(1.81%) 오른 402.87로 마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0월 8일 무너졌던 400선을 4개월여만에 회복했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1,200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전 거래일보다 16.97포인트(1.42%) 내린 1,175.47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23.30원 상승한 1,42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간 46.50원 급등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의 1,447.00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개인 워크아웃 상담 급증

신용회복위 광주지부 하루평균 36건 달해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개인 워크아웃(채무재조정)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회복 관련 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1건)에 비해 42.1%인 211건이 급증했다. 하루 상담 건수도 평균 35~36건에 달해 1년전 22건에 비해 13건 이상 늘었다. 또 지난해 12월(685건)에 비해 수도 27건이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건 이상씩 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 상담 건수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거진 지난해 9월이후 늘기 시작해 10월부터는 600건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상담자 중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도 384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31.9%인 93명이 늘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낸 경우 지원되는 소액금융의 실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달 소액금융 지원 실적은 94건으로 1년전에 비해 8.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 12월보다도 2배가 넘는 49건이 늘었다. 소액금융 대출금은 1건에 300~700만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김기성 팀장은 “아직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았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서비스업, 은행 대출 크게 줄어

지난해 내수 위축으로 건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금 은행의 대출이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08년 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917조1천101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4.1%, 113조3천600억 원 증가했다. 이중 산업대출금은 528조5천369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0.1%, 88조4천938억 원 늘었고 가계대출금은 6.8%, 24조8천922억 원 증가한 388조5천7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대출금을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은 25.0% 늘어난 187조2천507억 원으로 2006년의 8.3%, 2007년의 17.5%에 비해 증가율이 확대됐다. 이

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정책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의 대출금 잔액은 작년 말 현재 52조8천765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9.4%, 8조5천763억 원 늘어나 2006년 32.9%, 2007년 36.2%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서비스업의 대출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63조1천53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7.7%가 늘어나 전년도의 증가율인 29.1%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부동산업의 대출잔액은 79조7천423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8.2%, 12조2천607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증가율은 2006년 35.2%, 2007년 41.8%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연합뉴스

불황·시중금리 추락 생보사 경영난 심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시중금리가 추락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고 기존 계약의 해약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역마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마땅한 자산 운용처를 찾기 힘들고 기존 고금리 상품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작년 10~12월 생보사들의 신계약 첫회 보험료는 3천2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월평균 신계약의 첫회 보험료는 1천204억 원으로 전년도의 1천227억 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연합뉴스

SAFA

생활 제조회사

SAFA의 편안한 의자는 당신의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SAFA의 다양한 의자는 다양한 생활 스타일에 맞춰줍니다.

조이케질 SF-01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042) 365-3200

1688-1471

02-487-8256

가구전문 업체 '리바트' 광주에 종합전시장 오픈

가구전문 업체인 (주)리바트가 광주에 대규모 지역 종합전시장을 오픈했다. 리바트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 약 500㎡ 규모의 5층 건물을 신축해 가정용 가구 브랜드 '리바트'와 사무용 가구 브랜드 '네오스' 제품들을 전시했다. 또 리바트는 광주종합전시장과는 별도로 최근 북구 중흥동에 주방가구 브랜드 '리첸' 대형 전시장도 문을 열었다. 회사 관계자는 “광주종합전시장 오픈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유통망이 부족했던 광주 및 인근 지역의 영업거점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히 전시장 개념을 넘어 수준 높은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제품들을 전시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가구를 접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